

넷플릭스의 중역을 통한 다국어 번역 현황*

성 승 은 · 한 유 진 · 임 현 경**
(한국외대)

1. 서론

2000년대 세계 미디어 시장에 몇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보는 한 시각 (Vaddi 2020)에 따르면 첫 흐름은 유튜브(YouTube) 등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 두 번째는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을 위시한 글로벌 OTT¹⁾ 서비스의 급증, 세 번째는 IT 업체 및 전통적 미디어 업체의 자체 OTT 서비스 런칭으로, 애플 TV(Apple TV)와 디즈니플러스(Disney+)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글로벌 OTT 서비스의 대표주자로서 전 세계 각국의 오리지널 콘텐츠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킹덤'의 러시아어 및 중국어 분석을 도와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 송크세니아·황희원 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교신저자

1) OTT는 'over-the-top'의 약자로, 기존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더불어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Top는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며, 초기에는 TV 셋톱박스 같은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지칭했으나 현재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배병환 2013).

츠를 다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사례는 번역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 과거 현지 방송국에 의해 국가 수준으로 진행된 자막번역이 스트리밍 시대를 맞아 초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Pedersen 2018: 2).

2021년 1분기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2.07억 명의 가입자(Statistica 2021)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현지화된 경험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전한다(Local Experience, Global Scale)”(IMUG 2019)를 모토로 세계 각국에서 확보한 콘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한다. 처음 해외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캐나다에 진출하면서 제공 언어에 영어만 있었으나, 이제는 광범위한 언어로 자막과 더빙을 제공한다. 작년엔 큰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의 경우 31개 언어로 자막번역, 13개 언어로 더빙이 제공되었다(Deck 2021).

다국어 번역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넷플릭스는 템플릿과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일반 지침과 개별 언어 지침, 그리고 중역²⁾에 필요한 매개어 지침을 마련하여 번역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매개어 지침이 별도로 제공되는 이유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원문을 먼저 영어로 번역하고, 이를 매개어로 삼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중역 방식이 넷플릭스에서 널리 활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영어 매개본의 오류가 (매개어를 거친) 최종 번역본에 그대로 반영된다거나, 경어법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영어의 특성으로 인해 최종 번역본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등 중역에 따른 잠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다.

스트리밍 업체 중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의 번역 방식은 다국어 콘텐츠를 다루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영상번역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넷플릭스의 번역 방침을 고찰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그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국어 영상번역

2) 중역의 오랜 역사와 관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Casas-Tost and Bustins 2021). 하지만 영상번역에서도 중역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Casas-Tost and Bustins 2021; Diaz-Cintas and Remael 2007: 250),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다국어 번역을 위해 활용하는 중역은 최근의 두드러지는 현상으로서 주목이 필요하다.

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개괄한 후, 넷플릭스의 자막번역 현황과 최근의 진화 양상을 알아본다. 이어서 넷플릭스의 일반 지침과 현지화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개별 언어 지침³⁾과 매개어 지침을 각각 분석한 후 차이점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의 방향성 전환을 잘 보여주는 두 작품의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함의를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현지화와 다국어 영상번역

현지화, 혹은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은 현지 언어와 상황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일컫는다. 히메네즈 크레스포(Jiménez-Crespo 2013: 12)는 현지화에 대해 제품을 현지에 맞추어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사회문화적 장소와 해당 산업의 언어가 결합된 것으로 본다. 현지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internationalization)과 함께 언급되기도 하는데, 언어서비스업체인 라이온브릿지는 이들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Lionbridge 2021).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여러 나라의 사람, 문화, 경제를 더 가깝게 만드는 활동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조직이 전 세계 고객과 더 잘 연결되기 위해 행하는 업무를 뜻한다.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은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나라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응시키는 기업 전략이다. 예를 들어 번역해야 할 텍스트를 없애고 도표와 삽화만을 사용하여 지침서를 제공하거나, 번역이 필요한 지침서라도 최대한 문화적 중립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곤 한다.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 다양한 국가의 고객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현지화는 그 제품을 하나의 특정 시장에 특화되도록 적응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보통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된다. 100여 개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맥도날드(McDonald's)의 전 세계적 확장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예이다. 이 회사는

3) 여기서 ‘개별 언어 지침’은 중역이든, 직접 번역이든 최종적으로 도착어가 되는 언어의 지침을 뜻한다.

의도적으로 다양한 현지 입맛과 관습에 맞게 적응시킨 메뉴를 만드는데 이 정책이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의 예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이 대부분 코셔 푸드와 음료를 제공하고, 안식일과 유대인 휴일에는 영업하지 않는 것은 로컬라이제이션의 예이다. 이로써 맥도날드는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시장에 맞게 제품과 서비스를 맞춤화하였다.

최근 다국어 OTT 서비스의 부상에 따라 영상번역 분야에서도 각국 시장을 고려한 현지화 관점에서의 번역과 이를 위한 번역지침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글로벌 OTT 선도업체인 넷플릭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넷플릭스 터키어 오리지널 시리즈의 영어 번역을 분석한 쿠슈추 외즈부다크(Kuşçu-Özbudak 2019)는 호칭, 사회제도, 인사말,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소, 관용어, 비속어 등에서 자국화 경향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청중에게 친근한(audience friendly)”(391-392) 번역을 지향하는 넷플릭스의 지침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한편 페데르센(Pedersen 2018: 97)은 넷플릭스의 36개 언어별 번역지침을 고찰하여 번역 규범이 어느 정도로 현지의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아직 현지화의 반영 정도가 낮으나 향후 현지의 규범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의 텔레비전 영상번역 규범을 조망하면서, 넷플릭스의 지침은 여러 언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처방적인 규범으로 시작되었다가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점차로 각 도착어 중심의 기술적인 규범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에는 영상번역이 주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넷플릭스의 경우 워낙 다양한 언어로 방대한 양을 번역하다 보니 처방적인 규범으로 출발하여 점차로 각 도착어·문화에 맞추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2.2 다국어 영상번역과 템플릿

미디어 업계에서의 현지화는 템플릿(template)을 사용한 다국어 영상번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VOD의 급증과 함께 번역 수요가 늘어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번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술적 작업을 언어적 작업과 분리한 템플릿이 도입되었다. 템플릿에는 스파팅⁴⁾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로 번역가들은 ‘번역만’ 하면 되게 되었다(Díaz-Cintas and Remael 2021: 43; Georgakopoulou 2019). 템플릿의 사용은 넷플릭스와 같은 업체에서는 환영하지만, 번역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번역가들은 스팟팅을 직접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고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끼며, 언어·문화에 따라 스팟팅을 수정할 필요도 발생하여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Oziemblewska and Szarkowska 2020).

한편 템플릿이 다국어 영상번역의 기반이 되면서 템플릿에 맥락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Díaz-Cintas and Remael 2021: 42-45; Oziemblewska and Szarkowska 2020). 디아즈 신타스와 르마엘(Díaz-Cintas and Remael 2021: 42-45)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프로그램을 유럽어로 번역하는 유럽 번역가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사항이 아시아어나 아프리카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지엠블레프스카와 샤르코프스카(Oziemblewska and Szarkowska 2020)는 340여 명의 영상번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응답자는 기존의 주석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보았다. 지나치게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주석 설명을 지양하는 대신, 매개본의 경우 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정확한 번역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선별하여 상세한 주석 설명을 제공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3 다국어 영상번역과 중역

중역은 오랜 역사와 함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Assis Rosa, Pięta and Bueno Maia 2017; Marin-Lacarta 2018). 본고에서 중역은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을 기반으로 하여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Kittel and Frank 1991: 3). 영어로는 indirect translation, mediated translation, relay translation, secondary translation, chain

4) 스팟팅(spottting)은 각 자막의 인 타임(in time, 등장 시점) 및 아웃 타임(out time, 퇴장 시점) 정보를 삽입해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을 정하는 작업이다. 타이밍(timing), 큐잉(cueing) 또는 오리지네이팅(originating)이라고도 한다(Oziemblewska and Szarkowska 2020: 20).

translation, double translation 등이 혼용되며 학자나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Pym 2011; Ringmar 2007). 한편 영상번역에서는 ‘pivot translation’이 자주 사용된다(Artegi and Kapsaskis 2014; Casas-Tost and Bustins 2021; Díaz-Cintas and Ramael 2021: 43; Oziemblewska and Szarkowska 2020: 18; Pedersen 2011). 이는 ST와 TT를 매개하는 언어(주로 영어)를 주로 피벗(pivot)이라고 부르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최종 번역을 위한 중간 번역인 매개 번역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중역은 달리 접할 수 없는 작품을 만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한 단계가 추가되어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원문과 더 멀어지고 오역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다(Hekkanen 2014; Ivaska and Paloposki 2018). 영상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디아즈 신타스(Díaz-Cintas 2013)는 중역의 관행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윤리적으로 의문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고틀립(Gottlieb 2004: 91) 역시 중역은 오역을 야기하고 영어의 사용을 남용하며 수용 문화의 언어를 오염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카자스 토스트와 부스틴스(Casas-Tost and Bustins 2021)는 영상번역에서의 중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스페인에서의 아시아 영화 축계에 출판된 중국어 영화를 분석하여 중역의 비중과 사용 목적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중역을 사용하였으며 낮은 비용과 관행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중역이 만연하며 오역을 야기하므로 최종적인 감수가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페르뮐런(Vermeulen 2011)은 자막번역에서 매개본이 미치는 영향을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 주었다. 정구웅과 장메르(2016) 역시 영화 번역에서 중역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역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례를 통해 번역가가 원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중역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말한다. 한편 남윤지(2019)는 중역으로 인한 오류보다 중역을 통한 리프레이밍에 초점을 두고 중역에서의 변이 현상을 설명하였다.

한편 템플릿 도입 초기에는 출발어 기준으로 생성한 파일을 다국어 직접 번역 시 일괄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이후 출발어 템플릿을 매개어로 번역한 파일을 새로운 템플릿으로 삼아 다국어 중역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나 매개어를 이용한 번역 실무에서는 주석 설명에 대한 불만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Artegi and Kapsaskis 2014: 433-434; Díaz-Cintas and Ramael

2021: 42-45; Oziemblewska and Szarkowska 2020: 10-11). 독일어 영상번역가 두플레시스(DuPlessis 2020)는 영어 이외의 작품을 영어를 통해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독일어로 번역한 후에 원문이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자막과 차이가 크을 알게 되어 놀란 경험을 언급하였다. 한 영상번역가는 매개어로서의 영어 번역의 주석에는 번역 시 원문의 2인칭의 격식성과 같은 중요한 정보 대신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고 개탄한다(Wanders 2021). 따라서 중역에 기반한 다국어 영상번역에서는 맥락 정보와 더불어 매개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출발어 표현 관련 설명을 주석에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3. 현지화 관점의 다국어 자막번역: 넷플릭스 현황

현지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다국어 영상번역은 관여되는 언어의 수가 많고 서비스 데이터도 방대하므로 관련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글로벌 OTT의 대표주자인 넷플릭스의 자막번역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기술 기업으로 시작해 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한 넷플릭스는 자막번역 작업에 필요한 기술⁵⁾을 꾸준히 개발하고 적용한다. 넷플릭스의 번역에 사용되는 ‘오리지네이터(Originator)’는 프로젝트 매니저, 번역가, 벤더 등을 위한 중앙화된 허브로, 다양한 언어조합의 작업 및 관리 편의를 위해 사전에 스파팅이 완료된 템플릿을 기준으로 자막번역과 더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템플릿의 활용은 매개어 혹은 피벗 언어(pivot language)의 사용과 긴밀히 연결된다. 수십 개 언어를 다루는 넷플릭스와 같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개어를 통해 다국어로 번역하는 관행은 여러 장점이 있다. 원문을 최종 도착어로 직접 번역하는 번역가를 구하기가 힘들 때 번역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번역되는 언어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비용증가와 복잡함을 관리할 수 있다.⁶⁾

5) 넷플릭스의 기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테크 블로그(<https://netflixtechblog.com>)에서는 현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6) 예를 들어 유럽의회는 공식 언어가 24개인데, 매개어가 없이 직접 번역을 모두 하게 되면 552개 쌍이 된다. 영어를 매개어로 번역하면, 외국어에서 영어로 먼저 번역하는

한편 넷플릭스에서는 현지화를 위해 각 언어별 번역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적 민감성, 욕설, 중역, 시각적 요소(예: 온스크린 텍스트) 등 자막번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2019년 IMUG 행사⁷⁾에서 넷플릭스 번역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서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IMUG 2019).

각 언어에 별도의 번역 방법이 있는지, 혹은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원문의 창작 의도(creative intent)를 존중하지만, 도착어의 문화적 민감성을 존중하여 적절한 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문화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각 도착어의 상황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데, 욕설의 경우 원문보다 더 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언급된 예시는 이태리 영화에서 화자가 언급한 ‘la negra’를 영어에서는 ‘black bitch’라고 번역한 예이다. 흑인을 비하하는 ‘negra’를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번역할 경우, 미국에서는 원문 대비 훨씬 더 심한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역과 직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멜리사 사카모토(Melissa Sakamoto)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 매니저는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하여 중역하거나 영어 템플릿을 기반으로 자막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문의 창작 의도와 언어적 뉘앙스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매개어를 생략한 직접 번역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존 관행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깝고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언어 쌍으로는 스페인어-불어, 불어-이태리어, 스웨덴어-핀란드어, 한국어-일본어가 소개되었다.

사카모토 매니저는 직접 번역이 바람직한 대표적 작품으로 일본어 원문의 ‘테라스 하우스’와 한국어 원문의 ‘킹덤’을 꼽았다. ‘테라스 하우스’는 서로 모르는 남녀들이 모여 살면서 커플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이다.

23개 쌍과 영어에서 다시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는 23개 쌍이 필요하여 총 46개 쌍이 된다(DuPlessis 2020).

7) IMUG(International Multilingual User Group)는 GILT(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localization, and translation) 분야 전문가를 위한 포럼으로, 2019년 4월 28일 개최된 이 행사에서는 넷플릭스의 번역 담당자들이 번역작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서로 존댓말을 하고 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해지면서는 반말을 하고 편안한 어투로 바뀐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어 특유의 경어법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뉘앙스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되었다. ‘킹덤’은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 드라마여서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표현이 많다. 따라서 영어를 매개로 한 다국어 번역에서 문화소 번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 사례에 대한 구체적 고찰 및 비교 분석은 이후 5장에서 이어진다.

4. 넷플릭스 번역지침: 개별 언어와 매개어

넷플릭스가 운영하는 ‘파트너 지원 센터(Partner Help Center)’⁸⁾의 ‘자막 자원(Timed Text Resources)’ 섹션에서는 자막번역을 위한 각종 지침 및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출발어 용어 생성 지침, 출발어 대사 목록 등 번역 전 준비 작업을 위한 안내자료, 그리고 실제 번역 작업을 위한 일반 지침 및 현지화 모범사례, 개별 언어 지침, 매개어 지침이 포함된다.⁹⁾ 자막번역 작업의 특성상 번역지침에서도 기술적 사항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본고에서는 언어·문화적 사항을 중심으로 매개본과 개별 번역본을 비교하고자 번역 프로세스 및 언어를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4.1 사전 준비용 안내자료

넷플릭스에서는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번역 전 준비 작업을 위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주요 고유명사 및 어휘(KNP)¹⁰⁾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출발어 용어 생성 지침(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2a)이

8) 넷플릭스 파트너 지원 센터 홈페이지(<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는 자막번역 및 더빙 지침 이외에도 이미지, 음향, 시각효과, 품질관리, 콘텐츠 및 정보 보안성, 데이터 보호 등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9) 이 분류는 연구자의 분류이며, 해당 사이트에는 이러한 구분이 있지 않다.

10) KNP(key names and phrases)는 등장인물의 이름, 장소, 조직 및 구문(캐치프레이즈나 등장인물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아이콘처럼 사용하는 말) 등을 말한다.

제공된다. 이 지침에 따라 번역 인터페이스 내 KNP 도구(Netflix Production Technology Video Resources 2017)에서 용어 항목을 추가하고 분류 및 세부 설명을 함께 기재하며, 서로 연관된 항목을 연결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렇게 작성된 출발어 KNP 목록을 바탕으로 언어별 KNP 목록(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16)이 구축되어 번역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그림 1〉 KNP 도구를 사용한 인명 및 별명 항목 생성 예시

Type Person	Barb	AKA for Barbara Smith
Type Person	Barbara Smith	Female, best friend of Lucy Brown
Type Person	Foggy	AKA for Barbara Smith The person has a special ability to become transparent and move fast, like fog.

넷플릭스는 인명의 표기 방식, 용어 사용기간 표시, 인물 간 격식성 정도의 표시 등 KNP 목록을 위한 상세한 원칙을 제시(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16; Netflix Production Technology Video Resources 2017)하고 있으며, 일회성 등장인물의 경우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 용어 목록의 최소화를 주문한다. 이렇게 마련된 KNP 목록을 통해 넷플릭스는 핵심 용어가 에피소드 전체는 물론 각 시즌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실제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도록 한다. 또한 고유명사와 어휘의 번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곳에서 추적하도록 하여 내부 및 외부 사용자가 일관성 있게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넷플릭스는 출발어 대사, 번인(burned-in) 자막¹¹⁾, 온스크린 텍스트를 기록하고 실제 방영분에서의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출발어 대사 목록을 별도 양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2>는 출발어 대사 목록의 예시 양식이다.

11) 오픈 캡션(open caption)이라고도 부르는 번인 자막은 영상 자체에 통합 저장되어 시청자가 전환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자막을 말한다.

〈그림 2〉 넷플릭스 출발어 대사 목록 예시

1	2	3	4	5	6
OLD IN-TIMECODE	OLD OUT-TIMECODE	OLD SOURCE	OLD DIALOGUE	OLD BURNED-IN SUBTITLES	OLD ON-SCREEN TEXT
00:00:00:00	00:00:00:00				
00:01:02:19	00:01:05:19	JOHN	[speaks Spanish]	It's a beautiful day here in Madrid. It	
01:14:11:06	01:14:14:06	PENELOPE	[whisper] Oh, wait. Don't go.	Oh, wait. Don't go.	
01:29:23:19	01:29:25:06	PENELOPE	Hey, I don't think you should...		
01:29:34:19	01:29:36:09	PENELOPE	[speaks]		

4.2 번역 관련 지침

다양한 템플릿 및 도구 활용으로 영상번역에 근본적인 변화(Groskop 2021)를 가져온 넷플릭스의 번역지침은 일종의 업계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타 업체의 번역지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서는 넷플릭스의 일반 지침 및 현지화 모범사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개별 언어 지침과 매개어 지침을 살펴본 후 두 지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4.2.1 일반 지침 및 현지화 모범사례

‘일반 지침(General Requirements)’(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b;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d)은 모든 언어의 번역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언어별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2022년 1월 말 기준 14개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술적인 요소와 언어·문화적 요소를 함께 다룬다. 후자의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지는 않으나, 언급하는 내용으로는 통화, 브랜드명, 인용문 등이 있다. 통화는 도착어의 통화로 변환 없이 원문의 통화를 쓸 것을 명시하고 있다. 브랜드명은 영어의 브랜드명이 알려져 있을 때 이를 사용하거나, 현지 즉 수용어의 문화에서 알려진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더 일반적인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인용문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새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기존의 번역을 사용하려는 경우 저작권 만료가 되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나 저작권 관련 사항이 해결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을 비롯한 넷플릭스 번역지침은 변경 시마다 하단에 일자가 공지되

는데, 일반 지침은 첫 변경이 2016년 5월 15일에 있었고, 꾸준히 업데이트되었다. 2022년 1월 기준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2021년 7월 9일에 이루어졌다.

한편 ‘현지화 모범사례’에서는 장편 영화/드라마 시리즈와 논픽션 콘텐츠에 등장하는 각종 문화소, 온스크린 텍스트, 외국어 대화, 액센트 처리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음악 및 노래 - 플롯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이 해결되었을 때만 번역
- 브랜드명의 처리 - 일반 지침과 동일
- TV/영화 클립 처리 - 플롯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이 해결되었을 때만 번역
- 역사적/아카이브 영상 - 더빙은 하지 않고 자막만 번역
- 온스크린 텍스트 처리 - 플롯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번역
- 외국어로 이루어진 대화의 처리 - 맥락상 시청자가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만 번역. 즉 ST에서 자막이 있는 경우에만 번역¹²⁾
- 더빙에서의 액센트 처리 - 액센트가 플롯의 발전이나 농담,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식별 가능하다면 도착어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ST 만큼 잘 표현될 수 있을 때만 표현

4.2.2 개별 언어 지침

개별 언어 지침은 일반 지침을 토대로 언어별 특수 규정을 더한 자료이다. 2022년 2월 기준 44개 대상언어¹³⁾로 되어 있으며, 청각장애인용 자막(SDH)도 포함된다.¹⁴⁾ 2016년 다국어 번역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넷플릭스 지침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Pedersen 2018: 95-96). 실제로 각 지침 하단에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시점을 적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12) 구체적으로 한국어 지침을 보면 외국 단어나 문구는 가능하면 번역을 하고(hello, merci ...), 정확한 번역이 없는 경우에는 음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13) 개별 언어 지침은 주로 국가나 언어가 아닌 로케일(locale)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나 분류 기준이 일관적이지는 않다. 일례로 스페인어 지침은 유럽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중남미 스페인어를 모두 포괄하나, 포르투갈어의 경우 유럽 포르투갈어와 브라질 포르투갈어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14) 자막번역이므로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언어 지침도 일반 지침과 마찬가지로 체계가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 있지는 않다(Pedersen 2018: 92). 예를 들어 한국어 지침을 보면 섹션 제목 간 내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때로 중복되기도 한다. 불어에서는 브랜드명이 다른 언어들처럼 ‘특별 섹션(Special Section)’에 있지 않고, 별도의 섹션을 이룬다. 영어 지침의 경우 미국 영어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영국 등 기타 지역 영어에 대한 처리 방침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영어 지침은 SDH와 영어를 매개어로 한 중역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2개 섹션으로만 구성(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f)되어 있으며, 정작 영어를 도착어로 한 직접 번역에 적용되는 섹션은 없다.

영어 지침에는 없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한국어 지침(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e)에만 있는 내용으로는 온스크린 텍스트, 경어법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을 다루고 있는데,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경어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어법은 맥락, 관계, 시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성이나 나이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총 22개 섹션으로 구성된 한국어 번역지침 중에서 번역 측면에서 특히 유용한 부분은 ‘특별 섹션’이다. 이 부분에서는 번역 전반에 걸쳐 목표 청중과 관련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e).

항상 원문 내용의 톤을 유지하되, 목표 청중에 맞추도록 한다. 즉 톤, 어역, 격식성 등을 도착어와 동일하게 맞추라. (연구자 번역)

한국어 번역지침에는 한국어로 된 예시들이 있는데 내용적인 면보다는 형식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예컨대 이름은 음차하고,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Robert 대신 Bob과 같이 줄여서 쓰지 않으며,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화소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아래에서 보려는 ‘킹덤’의 경우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다수의 문화소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어휘를 번역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 힘들다.

단, 여기서 “목표 청중에 맞추라”는 개념이 반드시 자국화/이국화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개념은 문화소 등 문화적 민감성과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앞서 설명한 기술 및 형식적인 측면과 같이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쿠슈추 외즈부다크(Kuşçu-Özbudak 2019)는 청중에게 친근해야 한다는 넷플릭스의 지침을 자국화/이국화 전략과 연결했으나, 이는 TT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따를 것을 명시하는 것이며(Pedersen 2018: 92) 꼭 자국화 전략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 일례로 앞서 본 것처럼 넷플릭스 지침에서는 통화를 ST 그대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페데르센(Pedersen 2018)이 규범이 현지화의 과정에 있다고 한 것도 자국화의 의미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국화는 원문의 문화소를 TT의 문화에 맞출 것을 강조하는 것이나 현지화는 TT 문화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해당 문화의 규범이 자국화를 하는 경향이라면 번역이 자국화가 되겠지만, 이국화가 규범이라면 이를 따르는 것이다. 페데르센(Pedersen 2018: 97)은 넷플릭스 번역이 현지화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ST의 언어 문화 규범에서 점차 TT의 규범으로 가고 있다고 보았다.

4.2.3 매개어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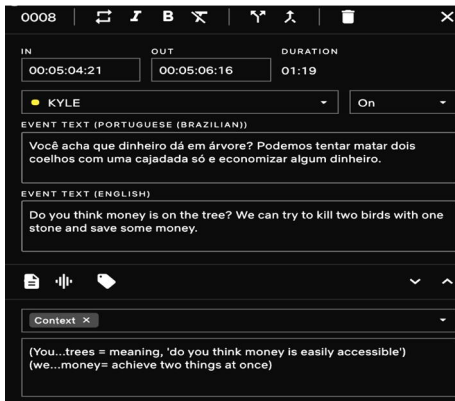
매개어와 관련된 설명은 여러 자료에 걸쳐 나타나는데,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19;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a;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c). 넷플릭스는 매개어의 번역지침을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며, 마치 매개본이 없이 직접 ST에서 TT로 번역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로 영어가 되는 이 매개본에서는 최종번역에서 필요한 정보와 맥락을 주석으로 설명할 것을 명시한다. 만약 어떤 내용을 주석에 넣어야 할지 헷갈릴 경우 차라리 과도하게 설명하는 편을 택하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매개어 관련 지침은 일반 언어 지침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매개어의 지침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매개본은 시간 지정 및 편집을 거친 자막 템플릿으로 ST와 TT 간 다리 역할을 한다.
- 매개본은 언어적으로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이 되도록 하고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이나 현지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주석을 꼭 제공하라.
- 도량형, 통화, 날짜, 시간 등을 바꾸지 말고 ST 그대로 사용하라.
- 문화소, 이름, 장소명 등을 ST 그대로 두라.

- 번역을 통해 농담, 언어유희 등이 사라지면 직역(literal translation)과 설명을 첨가하여 번역가가 매개본 이외에 원문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라.
- 문장구조와 길이를 ST와 동일하게 유지하라.
- 자막 읽는 속도로 인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주석으로 설명하라.
- 아래의 내용은 주석으로 설명하라.
성, 부정/긍정, 정관사/관사의 변화, 용어/법률용어, 문화소, 은어, 관용어, 농담, 복잡한 문법, 언어유희, 풍자와 아이러니, 어역, 격식성, 톤, 의도, 등장인물 간의 관계, 이름이나 별명, 연령, 장소와 거리, 인종, 종교, 지정학적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민족이나 LGBT+와 관련된 문화적 뉘앙스, 원문의 욕설의 정도(특히 매개본에서 특정 표현을 피하여 번역이 되었을 경우, 또는 트레일러나 부가영상에서 욕설이나 과한 표현을 할 경우)

위 내용을 종합하면, 영어 매개본은 가능한 한 원문의 내용과 구조를 유지하는 번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매개본을 기반으로 하는 번역자는 영어 번역을 보고 번역하지만, 각주를 통해 원문의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최종 TT로 번역한다. 넷플릭스의 매개본 번역을 위한 매개어 대사 목록 PLDL(Pivot Language Dialogue List)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19).

〈그림 3〉 매개어 대사 목록



위 그림에서 KYLE은 등장인물의 이름인데 지침에 따라 이름이 대문자로 쓰였다. 그 아래는 원문인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대사가 있고, 이어서 영어 번역이 제시되어 있다. 제일 아래의 박스 안에는 영어 매개 번역에 대해 맥락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매개본 번역에서는 원문의 관용적인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였으며(“Do you think money is on the tree?”), 이를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예시를 통해 PLDL 양식에서는 원문도 함께 제시되며, 영어는 가능한 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매개어 지침과 개별 언어 지침 비교

이 장에서는 개별 언어 지침 중 한국어 지침을 매개어 지침과 비교한다. 매개어 지침에서는 매개본의 기능을 감안하여 최종 도착어 번역을 위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맥락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매개본 단계에서의 임의적 개입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언어 지침은 매개어 지침에 비해 내용이 더 간략하고, 독자에게 맞출 것을 명시하고 있어 최종적인 현지화는 개별언어, 즉 최종 도착어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영어 번역이 최종 번역이 될 경우에는 목표 청중에 맞추는 게 중요하나, 영어 번역이 매개본일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를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개어 지침과 개별 언어 지침의 상이한 목적은 ‘현지화 모범사례’에 제시된 예에서도 볼 수 있다. 개별 번역에서는 ST에서 등장인물이 특정한 엑센트가 있을 경우 이것이 TT에서 뚜렷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만 표현하도록 하였으나, 매개어 지침에서는 배경 설명을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최종 독자를 위해 번역하도록 하였다.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두 지침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문화소 중심으로 본 개별 언어 지침과 매개어 지침

구분	개별 언어 지침(한국어)	매개어 지침
동화, 도량형, 시간, 날짜	원문대로 사용	원문대로 사용
브랜드명	영어의 브랜드명이 알려져 있으면 이를 사용하거나, 수용 문화에서 알려진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더 일반적인 브랜드를 사용	브랜드명이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꼭 확인
인용문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번역을 새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기존의 번역을 사용하려는 경우 저작권 만료가 된 경우에만 사용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설명
음악, 노래	플롯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이 있을 때만 번역 오프닝/엔딩 음악: 가사가 플롯과 관련이 있고 넷플릭스에서 지시했을 때만 번역	노래의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설명
TV/영화 클립	플롯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이 있을 때만 번역 역사적/아카이브 영상: 더빙하지 않고 자막번역을 제공	플롯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이 있을 때만 번역
외국어 대화	- 플롯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이 있을 때만 번역 - 외국어 대화가 등장인물 간의 언어 사용에 장벽으로 작용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외국어가 도착어라면 이를 넷플릭스에 알림	플롯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이 있을 때만 번역
관용어	내용 없음	주석으로 설명
이름/ 호칭	- 이름은 음차 -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번역' - 역사·신화 속 인물은 해당 언어에서 쓰이는 대로 사용 (예: 산타클로스) - 해당 인물이 성이나 이름 둘 중 하나로만 알려져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사용 가능 (한국어)	별명이나 기타 호칭에 대해 주석에서 설명
속어/은어	내용 없음	주석으로 설명
기타	(한국어) 존댓말/반말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경어법에 잘 반영되어야 함. 맥락, 관계, 시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성이나 나이에 근거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함	주석으로 설명

5. 넷플릭스 번역 사례

본 장에서는 넷플릭스의 ‘테라스 하우스’와 ‘킹덤’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자막번역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본다. 두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논의한 IMUG 행사에서 중역 대신 직접 번역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IMUG 2019)로 언급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IMUG 행사의 발표자 중 하나인 캐시 로크니(Kathy Rokni) 디렉터는 한 국내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킹덤’ 번역 시 매개본 활용이 아시아 언어와 서양 언어에서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제 2020).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하는 중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넷플릭스의 다국어 자막번역 관행이 가까운 언어 쌍 사이의 직접 번역 등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2019년 IMUG 행사를 전후하여 관찰되었기에, 넷플릭스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과 2019년으로 서로 다른 두 작품에서 이 같은 방향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테라스 하우스’는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 ‘킹덤’은 문화소 번역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5.1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는 처음 만나는 남녀가 한 곳에서 생활하며 연인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본에서 만든 리얼리티 쇼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에서 방송되었으며, 총 5개 시리즈 중 3개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2022년 2월 현재 서비스 언어는 음성 2개(일본어 음성해설 포함), 자막 26개이다. 여기서는 이 3개 중 첫 시리즈인 ‘도시남녀’를 보기로 한다. 2015년 9월 2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방송(Wikipedia 2022)된 ‘도시남녀’의 경우, 시기상 넷플릭스의 기존 관행에 따라 가까운 언어 쌍인 일본어-한국어 자막번역에도 영어가 매개어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15) ‘테라스 하우스’ 시리즈 중 최근작인 ‘러브 인 도쿄’는 2019년 5월 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으나, 악플에 시달렸던 출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현재 서비스 중인 3개 시리즈는 모두 2019년 이전에 공개된 작품이기에 동일 시리즈의 방향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테라스 하우스’에서 일본어의 복잡한 경어법이 최종 번역본에서 재현되기 위해서는 영어 매개본에서 관련 맥락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경어법이 덜 발달된 영어 매개본에서 맥락 정보가 잘 제공되고, 또한 이것이 최종 번역본에도 반영되어야 등장인물 간의 관계 변화가 잘 나타날 것이다. 일본어와 유사하게 경어법이 발달된 한국어의 경우, 일본어에서 직접 번역을 한다면 영어 매개본을 거치는 경우보다 뉘앙스가 더 잘 살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도시남녀’ 중 등장인물들이 처음 만나는 때, 어느 정도 안면이 뒀을 때,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된 때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 1>은 제1화에서 등장인물 중 테라스 하우스에 먼저 도착한 세 명(미노리, 마코토, 유키)이 처음 통성명을 하는 장면이다. 일본어로 모두 존댓말을 하고 있으며, 한글 번역에서도 존댓말로 번역이 되었다.

<예 1> 통성명 상황에서의 존댓말 사용(일본어와 한국어 일치) [00:06:03~00:06:28]

인물	일본어	한국어
유키	安達雄基です 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	아다치 유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코토	お願ひします	잘 부탁할게요
미노리	中田みのりです	나카다 미노리입니다
마코토	僕は 長谷川慎です	전 하세가와 마코토입니다
유키	慎君?	마코토?
마코토	はい	네
유키	お邪魔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何? 何をするんだ?	뭐 하고 있었어요?
	しゃべってたんすか?	얘기하고 있었어요?
마코토	そうですね	일단은요
미노리	3人目です	세 번째세요
유키	え?	네?
미노리	3人目です	세 번째로 오셨어요
유키	3人目ね	세 번째군요
	いい人そうでよかった	친절하셔서 다행이에요
미노리	いくつですか?	몇 살이에요?
유키	僕 今年で28になります	올해 스물여덟이에요

첫날 등장인물 6명이 모두 모인 이후에는 자신들이 지내게 될 방과 주방을 구경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래는 남자 등장인물들이 사용할 방에서 각자의 침

대를 정하는 모습이다. <예 2>는 동일하게 제1화인데 일본어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있다. 존댓말을 하는 부분은 일본어에서 밑줄 친 부분이다. 그러니까 처음 통성명을 하는 부분에서만 서로 존댓말을 하다가 곧 반말도 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모두 존댓말을 하고 있다. 일본어로 영상을 보면 이후에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할 때는 모두 다 반말을 한다.

<예 2> 친해진 이후의 존댓말/반말 사용(일본어와 한국어 불일치) (00:16:01~00:16:23)

인물	일본어	한국어
유키	もう どころが正解だか 分かんねえな こ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타츠야	でも 身長デカい的には 上いきたいよ	키가 커서 위가 좋겠는데요
유키	あっ 本当?	그래요? 난 상관없어요
마코토	俺どこでも… どこでもいい	저도요
유키	俺 じゃあここかな	아무 데나 좋아요
타츠야	あっさりだね いいの?	정말요?
마코토	全然 全然 上でいいっすよ	괜찮아요 위에 하세요
유키	俺ここかなじゃあ	난 여기로 할까 봐요
타츠야	上いいの?	위층 써도 돼요?
마코토	いいっすよいいっすよ	네, 괜찮아요

아래는 제8화에서 미노리가 유리코에게 자신이 호감을 갖게 된 남성 마코토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는 내용이다. 이때는 두 사람이 그동안 함께 생활하며 더 가까워져 반말을 하는 사이인데 번역에서는 아직 존댓말을 하고 있다. 미노리가 유리코를 부를 때 일본어에서는 ‘씨’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 않으며, “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에서와 같이 ‘저’라고 말하지 않고 ‘나’라고 하여 반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미노리와 유리코가 서로 존댓말을 하며 어느 정도 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 3) 고민 상담 시의 반말 사용(일본어와 한국어 불일치) (00:03:47~00:04:13)

인물	일본어	한국어
미노리	でその後 伊豆大島 行って	이즈오시마에 갔다 오고 나서
	歸ってきて 前みたいに LINEが急に來て	갑자기 문자가 왔었어요
	悠里子と まこちゃんが 2人で話した時の内容を聞いて	유리코 씨랑 둘이서 나눈 대화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私のこといいなって 思ってたけど”	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ウッチーと 伊豆大島 行ったりしたの見て”	타쓰야 씨와 이즈오시마에 갔다 오는 걸 보니
	“氣持ちなくなっちゃったんだよね っていう話を…”	감정이 사라졌다고

위 예들에서와 같이 일본어에서 나타나는 친근감의 변화는 영어 매개본을 거치면서 드러나지 않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번역한 한국어 자막에서도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5.2 킹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Kingdom)’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역병의 근원을 밝히려는 세자의 사투와 정치적 음모를 그린 사극 좀비물이다. 2019년 1월에 시즌 1, 2020년 3월에 시즌 2가 각각 공개되었으며, 2021년 7월에는 스페셜 에피소드 ‘킹덤: 아신전’이 공개되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드라마 톱 10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2022년 1월 현재 서비스 언어는 음성 15개(한국어 음성해설 포함), 자막 33개이다.

직접 번역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IMUG 행사가 2019년 4월에 열렸으며 해당 행사에서 ‘킹덤’이 주요 사례로 소개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처럼 언어적·문화적 거리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이 ‘킹덤’의 다국어 자막번역에 실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이 같은 거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화소가 아시아 언어(직접 번역)와 서양 언어(중역)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단, 중역 과정에서 사용된 매개본은 내부 자료로서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매개본을 기반으로 작성된 영어 번역본을

대안으로 삼았다.¹⁶⁾

언어와 문화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 페데르센(Pedersen 2011)은 언어 밖 세상을 언어기호로 표현한 ‘언어외적 문화 항목(ECR)’, 즉 문화소가 자막번역에서 중요한 번역 문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메시지 발신자와 수신자/관객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번역가의 문화소 중개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킹덤’의 문화소 분류는 페데르센(Pedersen 2011)의 귀납적 문화소 범주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기에 시대상이 반영된 위계적 호칭, 관직명, 도량형, 유교철학 개념, 고어 표현, 관용어 등이 주된 문화소 범주이다. 페데르센(Pedersen 2011)은 이들 문화소 범주에 대한 번역전략도 함께 범주화했는데, 이들 전략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지(retention)’는 출발텍스트의 문화소를 변경 없이, 또는 도착어 요건에 맞게 약간 조정해 유지하는 전략이다. ‘구체화(specification)’는 도착텍스트의 문화소에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이고, ‘직접역(direct translation)’은 의미 변동 없이 언어만 바꾸는 전략이다. ‘일반화(generalization)’는 도착텍스트 문화소의 구체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대체(substitution)’는 출발문화나 도착문화의 다른 문화소, 또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표현(상황적 대체)으로 출발텍스트 문화소를 대체하는 경우를 각각 뜻한다. ‘생략(omission)’은 출발텍스트 문화소가 도착텍스트에 아예 반영되지 않는 경우로, 자막번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쓰인다. ‘공식 등가표현(official equivalent)’은 타 기본 범주와 층위가 다른 전략으로, 일반적인 용법이나 행정적 결정에 따라 번역 방식이 미리 결정된다.

여기서는 먼저 시대적, 문화적 특수성이 선명하게 드러난 킹덤 시즌 1의 1화를 대상으로 출발어(한국어)와 영어 자막을 비교하고, 이들 자막에서 확인된 문화소의 아시아 언어(중국어 간체)와 서양 언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내 문화소 분류 및 번역전략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지면상 여기서는 영어 매개본의 적용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6) 넷플릭스의 번역 관행에 정통한 한 번역 작가는 영어 청중 대상의 영어 번역본과 최종 번역본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하는 영어 매개본이 별도로 작성된다고 확인하였다(2022년 3월 3일 개인 연락, 전화 통화와 문자).

〈예 4〉 고유명사/칭호 (00:12:32~00:13:25)

인물	한국어	영어
창	너희는 누구의 궁인이나	Whom do you serve?
	너희가 섬기는 왕은!	Whom do you consider the King of this nation?
	아바마마인가, 해원 조씨인가!	Is it my father or the Haewon Cho Clan?
	대전이건 중궁전이건 동궁전이건	Is there anyone in the entire palace
	이 궐 안에 해원 조씨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냐!	who does not follow the orders of the Haewon Cho Clan?
내시	저하!	Your Royal Highness.
함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be understanding! -Please be understanding!
창	좌익위를 부르라	Call <u>Mu-yeong</u> .
무영	부르셨습니까	Your Royal Highness.

〈예 4〉에서 세자 창은 병중에 든 왕을 찾아가지만 계비인 중전에게 강녕전 출입을 거절당한다. 그는 재차 강녕전에 들어가 아버지의 안위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나, 중전의 명을 받은 내시들이 그를 막는다.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전과 외척 세력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 그는 측근인 좌익위 무영을 불러들인다.

한국어에서는 ‘무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관직명 ‘좌익위’를 사용했으나, 영어에서는 인명(Mu-yeong)으로 대체해 현지의 관습에 맞추고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중역을 거친 스페인어(Mu-yeong)와 러시아어(Мухе) 최종 번역본은 영어와 동일하게 인명이 사용¹⁷⁾된 반면, 직접 번역 가능성이 높은 중국어(左翊卫)에서는 한국어와 동일한 관직명이 사용되었다.¹⁸⁾ 이 같은 아시아 언어와 서

17) 단, 페데르센(Pedersen 2011)의 번역전략 분류에 따르면 영어 철자를 그대로 살린 스페인어의 번역전략은 ‘유지’, 알파벳 체계가 상이한 러시아어는 ‘직접역’으로 볼 수 있다.

18) 이러한 차이의 잠재적 원인으로 중국어와 서양 언어 사이의 자막 자수 제한을 고려하였으나, 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킹덤’ 시즌 1의 1화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과 중국어 자막 전체를 살펴본 결과, 두 언어의 행별 자막 자수 제한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준으로 행당 16자(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2b)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의 자수가 대체로 적었다. 중국어 자막의 일반적 자수 제한은 행당 14~16자(Díaz-Cintas and Remael 2007: 85)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자막 자수 제한이 극도로 엄격한 편이 아님을 감안하면

양 언어의 문화소 번역 차이는 이후 사례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예 5〉 관용어 (00:37:49~00:38:15)

인물	한국어	영어
무영	한양에서 동래까지의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아십니까?	Do you know how far it is from Hanyang to Dongnae?
	궁궐에서 여기 올 때도	You almost vomited several times
	시궁창 냄새 때문에 뒤통 냄새 때문에	on the way here from the palace
	몇 번이나 구역질을 하셨지 않습니까?	because of the stench.
	그런데 저 먼 동래 길을	How can you make it all the way to Dongnae
	900리 길을 그 고된 길을 어찌 가시려고 하십니까?	on such rough and difficult roads? It is nearly 350km away.
창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보다 더 고되었다	My life until now has been more difficult than that.
무영	진지는 어떡하시고요?	What about your meals?
	궁궐에서 드시던 산해진미는 구경조차 못 하실 겁니다	You will not even get to see the <u>delicacies</u> you enjoy in the palace.
창	상관없다	I do not care.

〈예 5〉에서 창은 왕이 앓고 있는 병의 비밀을 밝히고자 왕을 진료했던 의원이 있는 동래(부산)에 직접 가기로 한다. 궁궐에서 안락한 삶을 살던 세자에게는 더욱 험난한 길이 되리라는 생각에 무영은 격렬히 반대하지만, 창은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동래에 반드시 가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한국어의 사자성어 ‘산해진미’는 영어에서 ‘별미’에 해당하는 표현 (delicacies)으로 일반화되었으며, 스페인어(manjares)와 러시아어(Деликатессы) 최종 번역본에서도 직접역이 이루어졌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현지 사자성어(山珍海味)가 사용되었다.

문화소 번역 시 경제성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유인이 이미 낮은 셈이다.

<예 6> 은유 (00:33:45~00:34:11)

인물	한국어	영어
학주	뭐라 적혀 있는지 이제는 보이시 요?	Now do you see what it says?
	이 나라의 하늘을 무너뜨리고	It says they will tear down the <u>King</u> ,
	질서를 어지럽히고	disturb the order,
	혼란에 빠뜨려	and create chaos,
	망국의 길로 이끈다 적혀 있소	thus leading this nation to ruin.
	이리 끔찍한 글을 앞에 두고	After reading such a horrendous letter,
	이 나라를 받드는 조정의 대신으 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should the members of the Court sit around and argue about
또 전란 때처럼 탁상에 앉아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을 것인가!	what should be done while doing nothing as they did during those wars?	
대신 1	대감, 이제 그만하시지요	Lord Cho, that is enough.

<예 6>은 조정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의정 학주가 대제학과 대치하는 장면이다. 고변을 근거로 하여 유생들을 역모 혐의로 처벌하려는 학주는 유럽이 곧 조선의 근간이라 주장하는 대제학의 머리를 탁자에 짓누르고 위협적인 어투로 반론을 이어간다.

여기서 한국어의 ‘하늘을 무너뜨리다’은 왕을 나타내는 은유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은유 대신 직설적인 표현(tear down the King)으로 대체되었다. 스페인어(derrocarán al rey)와 러시아어(Свергнуть Короля) 최종 번역본도 영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국어(天空崩塌)에서는 ‘하늘’이라는 은유가 그대로 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7> 정부 관련 오류 사례 (00:27:28~00:27:56)

인물	한국어	영어
서비	조금만 더 드세요 그래야 빨리 건강해지시죠	Eat a little more. You will recover faster that way.
병자 1	나중에 먹지	I will have it later.

영신	이딴 거나 먹여 대니	You call that food?
	이거 뭐,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뉘져 버리겠네	They will croak from starvation before the disease kills them.
서비	관아에서 환곡미를 곧 내려 준다 했으니	The government promised to send us <u>some rice</u> soon,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so wait until then.
영신	참이나 내려 주시겠다	Like they would.
	그놈의 환곡미 기다리다가	Dozens of people die every day
	하루에만 수십 명이 굶어 뉘지는 판인데	waiting for <u>that rice</u> .

<예 7>은 동래의 의녀 서비가 의원을 찾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이다. 부실한 환자식에 대해 영신이 불만을 토하자 서비는 쌀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청하지만, 영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여기서 ‘환곡미’는 조선시대 춘궁기에 국가에서 곡식을 줬다가 수확기에 갚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데, 영어에서는 해당 의미가 빠지고 ‘쌀’을 의미하는 식음료 문화소(rice)로 일반화되었다. 스페인어(arroz)와 러시아어(Рис) 최종 번역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식음료 문화소로 직접역이 이루어졌다. 단, 중국어에서는 ‘노란 쌀’을 의미하는 표현(黃谷米)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오역 이기는 하나 ‘노랗다’는 정보를 오로지 영어 번역에서 추출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아시아 언어 쌍의 경우 서양 언어와 별도로 관리하며 직접 번역을 대안으로 활용했으리라는 본고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이처럼 영어 매개본의 적용 여부는 아시아 언어와 서양 언어에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넷플릭스의 ‘킹덤’ 자막번역 접근법에 대한 캐시 로크니 로컬 라이제이션 매니저의 인터뷰 내용과도 일치한다. 한국어 대사 “세자 저하를 뵈옵니다”를 아시아권에서는 원문에 근접한 “We greet Your Highness”로 표현하고, 서구권을 위한 매개본에서는 문화적 관습을 반영하여 “Long live our crown prince”(세자 저하 만세)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직명도 문화권별로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한국어의 ‘어영대장’이 중국어와 일본어 자막에서는 ‘御營大將’(어영대장)으로 동일하게 표기된 반면 서구권에서는 ‘Head of Royal

Command'(왕실 수비대장)으로 옮겨졌다(박민제 2020).

문화소 비중이 높은 '킹덤'의 자막번역 사례는 언어적,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언어 쌍은 직접 번역하되, 거리가 먼 언어쌍은 매개본 활용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KNP 목록과 이 목록에서의 주석 설명을 통해 일종의 '공식 등가표현'(Pedersen 2011)을 적용함으로써 문화적 정보를 보충하는 이원화된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다만 본고에 제시된 예시에서는 서양 언어의 '공식 등가표현' 활용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서양 언어 쌍에서 나타난 문화적 정보의 일반화 경향이 KNP 목록 내 주석 설명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자막자수 제한에 따른 우선순위화의 결과인지는 실제 자막번역에 사용된 영어 매개본 및 KNP 목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논의 및 결론

본고는 넷플릭스의 개별 언어 지침과 매개어 지침을 비교하고 이것이 실제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분석한 '테라스 하우스'와 '킹덤'은 중역이 아닌 직접 번역이 필요한 사례로 넷플릭스에서 직접 뽑은 작품이다. 전자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 변화가 일본어 원문에서 언어적 표지로 드러나며, 후자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문화소를 다양하게 다룬다.

넷플릭스의 개별 언어 지침 중 한국어 지침과 매개어 지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지침의 서로 다른 용도가 지침의 내용 및 접근법에도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번역을 위한 개별 언어 지침은 각 문화의 특성에 따른 현지화의 여지를 열어둔다. 일례로 한국어 번역지침 중 등장인물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은 맥락과 관계를 고려하여 경어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소 처리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없으나, 청중에 맞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면 매개어 지침에서는 원문 의미의 충실한 전달에 집중하며, 등장인물 간 관계나 여러 문화소에 대해 주석으로 충분히 설명을 제공하도록 한다. 최종 번역본(즉, 개별 언어 번역본)을 위해 배경 맥락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맥락의 범위 역시 매우 넓고 개별 언어 지침에 비해 훨씬 상세하다. 무엇보다 원문의 '창작 의도'가 최종 번역에서도 드러나도록 번역할 것을 명시하여 매개어 번역

에서 원문의 맥락과 의미가 소실되지 않는지, 어떤 주석을 첨가해야 번역가가 최종 도착어로 잘 번역할 수 있는지 유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넷플릭스의 매개어 지침은 중간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별 언어 지침과 매개어 지침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다국어 번역을 위해 중역을 활용하되 상세한 맥락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역의 잠재적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 넷플릭스의 기존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열린 IMUG 행사에서 제시된 직접 번역의 논거와 주요 사례는 넷플릭스가 언어적, 문화적 거리를 감안하여 언어 조합별 관리 방식을 다각화하는 한편, 문화적 정보의 충실한 전달을 위해 직접 번역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5~2016년에 공개된 ‘테라스 하우스’의 ‘도시남녀’ 시리즈의 경우, 한국어에서도 일본어와 같이 등장인물 간의 관계 변화를 나타내는 언어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자막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작품의 공개 시기상 영어를 통한 중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에, 영어 매개본을 기준으로 작업한 개별 언어 번역가에게 격식성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IMUG 행사를 몇 달 앞둔 2019년 1월에 공개된 ‘킹덤’은 아시아 언어와 서양 언어 자막의 문화소 번역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는 언어 쌍의 거리에 따라 직접 번역과 중역으로 이원화된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넷플릭스의 번역지침과 실제 번역 사례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역에 기반한 다국어 자막번역은 효율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서 넷플릭스의 전 세계적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테라스 하우스’의 사례에서 보듯 매개본에서의 맥락 정보 누락은 최종 번역본 청중의 오해 및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적인 매개본은 직역(literal translation)이면서 필요한 주석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DuPlessis, 2021년 11월 10일 이메일 연락). 자막번역의 내재적 제약으로 인해 무한정 긴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KNP 목록과 이 목록에서의 주석 설명을 통한 ‘공식 등가표현’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중역의 잠재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넷플릭스의 자막번역 관행은 기존의 중역 기반 번역에서 가까운 언어

쌍의 직접 번역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향후 필요 시 영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원문에서 직접 번역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실제로 미디어 업계 전반에서 인기 있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역을 늘리고 있다(Deck 2021). 또한 넷플릭스의 번역지침이 꾸준히 갱신되며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바뀌고 있어 페데르센(Pedersen 2018)의 주장과 같이 현지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가 인력의 부족과 비용 문제로 인해 모든 언어 쌍에 직접 번역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부족하나, 언어적·문화적 거리를 감안한 이원화된 접근법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문화적 정보의 손실을 막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넷플릭스의 일반 지침, 개별 언어 지침 및 매개어 지침은 다양한 언어 조합의 대규모 콘텐츠 현지화를 위한 발판으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관련 지침의 지속적 변화 과정에서 일반 지침과 개별 언어 지침의 내용 중복과 체계 부족, 여러 자료에 걸친 매개어 지침의 산발적 제시, 영어 지침의 혼란스러운 규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내용을 재편하고 새로운 방향성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넷플릭스의 자막번역에 초점을 두어 더빙이나 음성해설, 청각장애인용 자막(SDH)은 다루지 못했으며, 실제 중역 과정에서 사용된 매개본의 입수가 불가능한 관계로 맥락 정보의 제공과 KNP 목록 및 주석 설명의 구체적 활용 양상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OTT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넷플릭스의 다국어 번역지침 및 관행을 짚어보고, 실제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변화 양상과 함의를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영어 매개본과 영어 번역본의 비교, 동일 언어 조합 내 중역 및 직접 번역 결과물의 비교, KNP 목록의 확보 및 추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다국어 번역을 보다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남윤지 (2019) 「영화 자막 중역(重譯)의 변이 현상 - 「언터처블: 1%의 우정」 사례 분석」, 『통번역학연구』 23(3): 25-60.

- 박민제 (2020. 3. 28) 「폴란드어로 “세자 저하”...‘킹덤2’ 넷플릭스 흥행의 숨은 공신」, 『중앙일보』, 2022년 1월 31일 검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1418#home>.
- 배병환 (2013) 「OTT(over the top) 서비스」,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5월호: 45-49.
- 정구웅, 기욤 장메르 (2016) 「영화 자막의 중역(重譯) 사례연구: <알로, 슈티>의 경우」, 『통번역학연구』 20(3): 97-120.
- Artegianni, Irene and Dionysios Kapsaskis (2014) ‘Template Files: Asset or Anathema?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ubtitles of *The Sopranos*’, *Perspectives* 22(3): 419-436.
- Assis Rosa, Alexandra, Hanna Pięta and Rita Bueno Maia (2017)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Regarding Indirect Translation: An Overview’, *Translation Studies* 10(2): 113-132.
- Casas-Tost, Helena and Sandra Bustins (2021) ‘The Role of Pivot Translations in Asian Film Festivals in Catalonia: Johnny Ma’s *Old Stone* as a Case Study’, *Journal of Audiovisual Translation* 4(1): 96-113.
- Deck, Andrew (2021) ‘Lost in Translation: The Global Streaming Boom Is Creating a Severe Translator Shortage, Rest of World’. Available at <https://restofworld.org/2021/lost-in-translation-the-global-streaming-boom-is-creating-a-translator-shortage/>.
- Díaz-Cintas, Jorge (2013) ‘Subtitling: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in Carmen Millan-Varela and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91-305.
- Díaz-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first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íaz-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21) *Subtitling: Concepts and Practi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uPleiss, Dietlinde (2020) ‘Pivot Languages in Subtitling’, *Deep Focus*, Spring 2020, Issue 6: 10-13.

- Georgakopoulou, Panayota (2019) ‘Template Files: The Holy Grail of Subtitling’, *Journal of Audiovisual Translation* 2(2): 137-160.
- Gottlieb, Henrik (2004) ‘Language-Political Implications of Subtitling’, in Pilar Orero (ed.)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83-100.
- Groskop, Viv (2021) ‘Lost in Translation? The One-Inch Truth About Netflix’s Subtitle Problem’, *The Guardian*, October 14.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tv-and-radio/2021/oct/14/squid-game-netflix-translations-subtitle-problem>.
- Heilbron, Johan (2010)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World System of Translation’, UNESCO International Symposium ‘Translation and Cultural Mediation’, February 22-23. Available at https://ddd.uab.cat/pub/1611/1611_a2015n9/1611_a2015n9a4/Heilbron.pdf.
- Hekkanen, Raila (2014) ‘Direct Translation – Is It the Only Option? Indirect Translation of Finnish Prose Literature into English’, in B. J. Epstein (ed.) *True North: Literary Transl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47-64. Available at <http://ebookcentral.proquest.com/lib/hufs-ebooks/detail.action?docID=1707030>.
- IMUG (2019) ‘Netflix: Subtitling for the World’s Entertainment :: IMUG 2019. 04.18.’, July 6.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8eK9ZsPzj8c&t=1730s>.
- Ivaska, Laura and Outi Paloposki (2018) ‘Attitudes Towards Indirect Translation in Finland and Translators’ Strategies: Compilative and Collaborative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11(1): 33-46.
- Jiménez-Crespo, Miguel A. (2013) *Translation and Web Loc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ittel, Herald and Armin Paul Frank (1991) ‘Introduction’, in Herald Kittel and Armin Paul Frank (eds) *Interculturality and the Historical Study of Literary Translations*, Berlin: Erich Schmidt Verlag, 3-4.

- Kuşçu-Özbudak, Seda (2019) ‘Subtitling in Local Original Series of Netflix: Is “the Protector” Protecting Culture?’, *RumeliDE Dil ve Edebiyat Ara tirmaları Dergisi* 17: 383-394.
- Lionbridge (2021)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의 차이: ‘글로벌 진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드러내는 미묘한 특징」, 2022년 1월 31일 검색, <https://www.lionbridge.com/ko/blog/translation-localization/globalization-internationalization-whats-the-difference/>.
- Marin-Lacarta, Maialen (2018) ‘Mediated and Marginalised: Translation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in Spain (1949-2010)’, *Meta* 63(2): 306-321.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16) ‘Template: Key Names & Phrases Master Glossary (KNP)’, May 4.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9048698-Template-Key-Names-Phrases-Master-Glossary-KNP>.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19) ‘Legacy Workflow: Pivot Language Dialogue List SOW’, July 11.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360001610707-Legacy-Workflow-Pivot-Language-Dialogue-List-SOW>.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a) ‘Script Authoring Tool: Pivot Language Dialogue List SOW v2.0’, March 19.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360051861714-Script-Authoring-Tool-Pivot-Language-Dialogue-List-SOW-v2-0>.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b) ‘Timed Text Style Guide: General requirements’, July 9.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5758617-Timed-Text-Style-Guide-General-Requirements>.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c) ‘Timed Text Style Guide: Subtitle Templates’, July 9.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9375728-Timed-Text-Style-Guide-Subtitle-Templates#h_01EXJ1B1VSKZP6HAM6SW1F480V.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d) ‘Timed Text Style Guide: Supplemental

- Service & Marketing Assets’, July 9.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115000239632-Timed-Text-Style-Guide-Supplemental-Service-Marketing-Assets>.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e) ‘Korean Timed Text Style Guide’, July 11.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6001127-Korean-Timed-Text-Style-Guide>.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1f) ‘English Timed Text Style Guide’, October 22.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7350977-English-Timed-Text-Style-Guide>.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2a) ‘KNP Source Term Creation Guideline’.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115001380572-KNP-Source-Term-Creation-Guideline>.
- Netflix Partner Help Center (2022b) ‘What is the Maximum Number of Characters per Line Allowed in Timed Text Assets?’. Available at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5274938-What-is-the-maximum-number-of-characters-per-line-allowed-in-Timed-Text-assets->.
- Netflix Production Technology Video Resources (2017) ‘KNP Tool Overview’, July 20.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14y1zd_dQX8&t=385s.
- Oziemblewska, Magdalena and Agnieszka Szarkowska (2020) ‘The Quality of Templates in Subtitling. A Survey on Current Market Practices and Changing Subtitler Competences’, *Perspectives*, DOI: 10.1080/0907676X.2020.1791919.
- Pedersen, Jan (2011) *Subtitling Norms for Television: An Exploration Focussing on Extralinguistic Cultural Referenc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edersen, Jan (2018) ‘From Old Tricks to Netflix: How Local Are Interlingual Subtitling Norms for Streamed Television?’, *Journal of Audiovisual Translation* 1(1): 81-100.
- Pedersen, Jan (2020) ‘Audiovisual Translation Norms and Guidelines’, in

- Łukasz Bogucki and Miłkołaj Deckert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Audiovisual Translation and Media Accessibility*,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417-436.
- Pięta, Hanna (2017)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Terminological Issues in Researching Indirect Translation: A Critical Annotated Bibliography', *Translation Studies* 10(2): 198-216.
- Pym, Anthony (2011) 'Translation Research Terms: A Tentative Glossary for Moments of Perplexity and Dispute', in Anthony Pym (ed.) *Translation Research Projects* 3, Tarragona: Intercultural Studies Group, 75-110. Available at http://isg.urv.es/publicity/isg/publications/trp_3_2011/index.htm.
- Ringmar, Martin (2007) "'Roundabout Routes": Some Remarks on Indirect Translations', in Francis Mus (ed.) *Selected Papers of the Cetra Research Seminar in Translation Studies 2006*, Leuven: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1-17.
- Statista (2021) 'Subscription Video-on-demand (SVOD) Subscriptions and Subscribers Worldwide from 2020 to 2026'. Available a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35801/global-svod-subscriptions-and-subscribers/>.
- Vaddi, Mallikarjun (2020) 'Will Peak TV Burst the Video Content Bubble?', October 15. Available at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0/will-peak-tv-burst-the-video-content-bubble>.
- Vermeulen, Anna (2011) 'The Impact of Pivot Translation on the Quality of Subtit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23(2): 119-134.
- Wanders, Anne (2021) 'Are the Squid Game Subtitles Really That Bad – And if So, Why?', *Annewanders.com*, October 14. Available at <https://www.annewanders.com/blog-en/2019/12/12/are-the-squid-games-subtitles-really-bad-and-why>.
- Wikipedia (2022) 'Terrace House: Boys & Girls in the City', January 4.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Terrace_House:_Boys_%26_Girls_in_the_City.

[Abstract]

Netflix's Multilingual Subtitling Through English Pivot Translation: Guidelines, Current Practices and Future Directions

Seung-eun Sung, Yu-jin Han & Hyun-kyung L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TT (over-the-top) services have s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subscribers over the past few years. Their global expansion and an increasingly multilingual viewership fuel the need for translation into various languages. Netflix, for example, produces and offers subtitles in many different languages via pivot translation; the source text is first translated into an English template and then further produced into many languages. Although a widespread practice, there is scant research on pivot translation in translation studies. Yet, it deserves more attention given that it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because of its many benefits such as streamlining processes and satisfying the increased need for multilingual transl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s Netflix's subtitling guidelines to examine how Netflix sees pivot translation and to discuss how it may evolve in the future. First, Netflix's subtitling guidelines for English pivot translation are compared to those of other individual languages for any differences. The guidelines are then applied to two programs—*Terrace House* and *Kingdom*. These two are chosen as representative cases where particularly speech levels of the former and cultural references of the latter can pose difficulties in translating when first going through the English mediating language. As a leader in OTT service, Netflix's multilingual translatio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ther streaming companies. This study could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role of pivot translation and ways multilingual translation will unfold in the future.

Keywords: English as a pivot language, template, translation guidelines, speech level,
cultural references, audiovisual translation

주제어: 영어 매개어, 템플릿, 번역지침, 화계, 문화소, 영상번역

성승은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대학 부교수

mishsung@hufs.ac.kr

관심분야: 중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아동문학번역

한유진 (공동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

heuzin@naver.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임현경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lunaires@hufs.ac.kr

관심분야: 전문용어학, 번역기술, 문화소, 로컬라이제이션

논문투고: 2022년 2월 6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2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3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3월 22일